
현지영 작가의 개인전 '명상-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시간, 내 마음을 볼 뿐'이 7월25일~8월 22일 창원 은암선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에서 열린다.

화려한 색채로 만나는 명상 세계

불교명상가 현지영 작가 개인전

은암갤러리서 7월 25일~ 8월 22일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觀
명상 수행의 과정을 담은 20여 작품
"힘든 시기, 쉼을 줄 수 있는 전시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불교 명상의 정의이다. 관(觀)을 통해 사라짐을 마주할 때 생겨나는 지혜는 꽃 보다 아름답다. 명상을 통해 만나는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불교명상가이자 서양화가인 현지영 작가가 직접 수행하고 바라본 명상의 세계이다.

현지영 작가의 개인전 '명상-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시간, 내 마음을 볼 뿐'이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창원 은암선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에서 열린다.

현 작가의 작품 주제는 명상이다. 작가는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 고통의 사라짐을 마주했으며 수행의 가치를 작품을 통해 설명했다.

현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색상과 구도가 복잡한 작품과 단순 명료한 선(禪)적인 작품이다. 번뇌가 가득한 마음 상태와 알아차림을 통해 단순해진 마음, 두 가지를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했다.

현 작가는 "작품에 보면 닭 그림이 많이 나온다. 아버지가 닭띠셨고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망상 속에 아버지가 자주 떠올라 작품에도 나오게 됐다. 사랑을 많이 주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수행을 통해 보면 잡념인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현재 속에서 분별심 없이 알아차림하고 대상을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작품은 특히 선명한 색채로 뚜렷한 색감을 보여준다. 선명하고 명료하게 아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현 작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호흡명상 중에 고요한 '숨' 한번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크게 느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명상의 편안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7월 25일 오후 2시 은암문화재단 내 은암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며 작품 판매 수익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작품은 20여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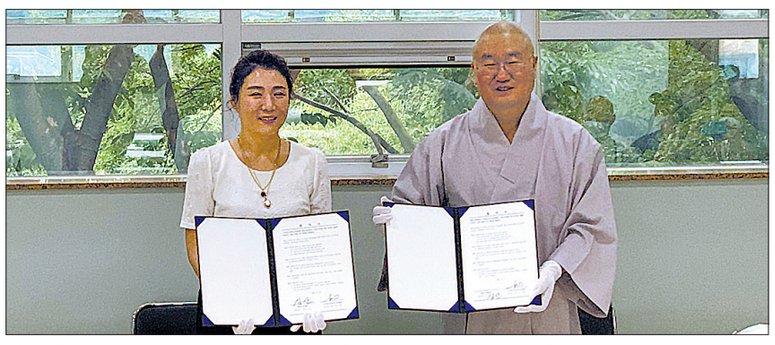
현지영 작가는 창원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활발한 작품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04년 대우갤러리, 2012년 갤러리 팔레 드 서울, 2016년 중국 베이징, 2017년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8년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2011년 중국 상해 아트페어, 중국 광저우 계림미술관 한중일 교류전, 2012년 중국 사천성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제, 2015년 스위스 취리히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출품했다.

은암문화재단은 "한 달간 열리는 이번 작품 전시는 발전과 성취가 중요한 현대인의 삶에 명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작품을 통해 현대인은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보는 명상을 마주하고 삶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를 만날 것이다"고 말했다. 055)325-4008

행복드림센터, 미혼부모 가족 사업 나선다

행복드림센터 7월 3일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협약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고 미혼모가족의 위기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센터장 심산)와 (사)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대표 김도경)는 7월 3일 행복드림센터에서 '미혼부모 및 영유아 행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와 (사)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는 7월 3일 행복드림센터에서 '미혼부모 및 영유아 행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행복드림센터와 (사)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는 영유아 유기 예방과 미혼부모 지원 사업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특히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드림센터는 미혼부모의 생계지원과 긴급일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강구하며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문제와 육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회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센터장 심산 스님은 "미혼부모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간으로 행복드림센터가 잘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이번 업무 협약은 미혼부모를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경 대표는 "대부분 미혼모 지원과 단체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다"며 "협회는 2016년부터 부산경남지역 미혼모 모임을 시작했고 지역 내에서 미혼모가족에 적극 도움을 줄 단체와 기관을 찾고 있었다. 지난해 인연을 맺게 된 행복드림센터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미혼모 지원 현실을 반영할 때 매우 가치있는 시설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혼모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현실적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미혼모 회원 2,7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단체로 미혼모 가족의 위기 지원과 인식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는 2019년 4월 29일 개소해 영유아 유기예방에 앞장서며 15건의 유기예방과 1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행복드림센터 환경개선에 나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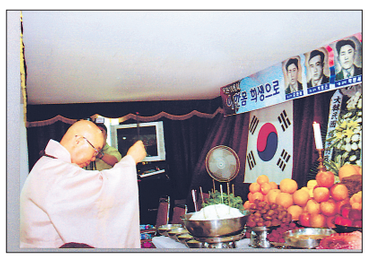
호국불교조계종, 순국선열 위령재

6월 24일 총본산 법전사서 봉행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6월 24일 제43회 병자호란, 임진왜란,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육탄10용사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는 코로나19 관계로 법전사 신도회(회장 김영옥)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모법문으로 진행됐다.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 법륜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령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한다. 이들을 천도해 이고득락토록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령재를 봉행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혜륜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들을 제도하며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참상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애족 애국정신을 기르고, 나라사랑 충성심을 일깨워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과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앞으로 경건하고 더욱 알찬 국민적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추모기념 법문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재소자들에 시원한 얼음물 전달해요"

전주교도소 교정協, 얼음용 생수 3만 병 전달식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가 수용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얼음용 생수 3만 병을 지원했다.

최근 2년 임기의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에 취임한 진성 스님을 비롯해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3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돕는 얼음용 생수 3만 병을 전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얼음용 생수 전달식에는 교정협의회 고문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김용운 장로, 백연기 대표, 명예회장 오성택 목사, 현진 스님, 행담 스님, 회일 스님 등 스님들과 이원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교정협의회 운영위원, 전주교도소 최병록 소장, 사회복귀과 이관영 과장, 공현철 계장, 김정하 계장,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원 등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돕는 자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교정협의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이처럼 수용자들을 위해 얼음용 생수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교정위원들이 모아온 생수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2년 간 교정협의회장 임기 동안 수용자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많은 수용자들 중 치열한 자아반성을 통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정교화활동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3일 수용생활을 돕는 생수 3만 병을 전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소장 최병록 소장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협의회에서 후원해주신 떡과 생수를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후원해주신 생수는 30℃ 이상의 폭염이 발생시 수용자들에게 고루 나눠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활동의 일환으로 3만 병의 얼음생수를 전달해왔다.

조동제 지사장

찾아가는 장학금 "학생들 힘내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가정방문 장학금 전달

문수복지재단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은해 관장 및 직원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4일 '가정방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총 720만원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 25명에게 각 전달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장학생은 지역 내 초등학생 3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6명으로 소외 계층 저소득 가정 내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선발됐다.

장학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개인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장학생을 선발하고 후원하고 있다.

서은해 관장은 "성실하고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예지(가명) 학생은 "이번해 사회복지과에 입학했다. 복지관의 후원과 관심으로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다"며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먼저 베풀고 나누고 싶다.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월 1일 제4대 관장 취임식을 복지관 내 강당에서 개최했다. 새로 취임한 서은해 관장은 25년 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지역 내 복지를 위해 활동해 온 베테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4일 '가정방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저소득 가정 방문 전 서은해 복지관장과 직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불청 부산, 사찰 문화 포교 앞장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강의 시작

사찰문화가 새로운 포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진희)는 7월 8일 부산 온천동 불이빌딩 9층에서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강의 입재는 인사말 및 강의 진행설명 등으로 시작했으며 첫 강의는 박종안 포교사가 담당했다. 강의에는 기존 인원수인 30명 보다 초과한 40명이 참여했으며 불자 외 일반인, 천주교 신자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희 회장은 "선착순 30명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며 "참여 인원수를 더 늘렸는데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대기가 있을 정도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더 받지 못했고 강의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강의는 매월 2, 4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총 7강 5번의 사찰답사로 진행된다.

대불청 부산지구에서 진행하는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은 지난 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돼 시작됐으며,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불청 5개 지구에서 참여한다.

한편, 제1기 사찰문화해설사 수료생들은 현재 부산지역 폐사지를 답사하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